

2023

싱가포르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 지표	5
2. 20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경제 활성화 계획	6
나. 디지털 경제 확대	7
다. 지속가능성 실천 촉구	8
라. 기타	9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2
2. 시장 분석	27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7
나. 수출	28
다. 투자	32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6
가. 교역	36
나. 투자	38
다. 협력 유망 분야	39

III

진출전략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2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3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8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52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3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4

2023

싱가포르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경제 성장 속도 더뎠을 전망이나, 안정적인 성장세 기대

- 싱가포르 '21년 급격한 경제 반등에 이어 '22년 완만한 경제 성장 전망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22년 GDP 전년 대비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21년 경제성장률 7.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타격으로 위축되었던 '20년 Δ 5.4%에서 반등
 -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글로벌 공급망 사태·높은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 닫고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예고('22.8)
- '23년 안정적인 성장세 기대되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영향 예상
 - 아시아개발은행(ADB), '23년 싱가포르 GDP 성장률 3%대로 예상
 - 관광 전면 재개·소비 및 투자 진작 등 기회요인을 통해 경제 상승세 지속 기대

나. 주요 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	백만 명	5.60	5.61	5.63	5.70	5.69	5.45	5.33*	5.29
명목GDP	십억 U\$	318.8	343.2	377	375.5	345.3	397	423.6*	447.2
1인당 명목GDP	U\$	56,858	61,150	66,857	65,833	60,727	72,795	79,426	84,500
실질성장률	%	3.3	4.5	3.5	1.3	-5.4	7.6	3.7*	2.6
실업률	%	2.1	2.2	2.1	2.3	3.0	2.7	2.2*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	-0.5	0.6	0.4	0.6	-0.2	2.3	3.5*	NA
재정수지 (GDP 대비)	%	17.6	17.3	15.2	14.5	16.8	18.1	13*	12.7
총수출	백만 달러	329,860	373,355	412,813	390,652	368,096	457,564	250,345(a)	NA
(對韓 수출)	"	14,511	16,793	15,679	15,213	16,706	19,706	9,572(a)	NA
총수입	"	282,995	327,707	370,650	359,180	329,064	406,774	307,650(a)	NA
(對韓 수입)	"	17,001	16,166	14,198	13,728	15,573	22,173	15,792(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46,865	45,648	42,163	31,472	39,032	50,790	-57,305(a)	NA
경상수지	백만 달러	56,263	59,383	57,125	54,273	58,139	71,926	54,137*	56,007
환율 (연평균)	현지국/US\$	1.38	1.38	1.35	1.36	1.38	1.34	NA	NA
해외 직접 투자	억 S\$	8,397	8,836	8,676	9,932	10,340	NA	NA	NA
외국인 직접 투자	억 S\$	13,524	15,673	17,322	19,236	21,417	NA	NA	NA

주: a는 '22년 6월 누계 기준, *는 2022년 추정치, 2023년은 전망치, 투자는 Stock 기준
 자료: IMF, 무역협회(KITA), 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

2 20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대외 교역 확대와 내수 경제 지원 등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 예상됨. 또한, 글로벌 이슈인 “친환경”과 “디지털”에 대해 산업 전반적으로 실천이 촉구될 것으로 보임

가. 경제 활성화 계획

■ 수출 1조 싱가포르달러 달성 목표, “싱가포르 경제 2030 계획” 수립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무역 확대를 포함하여 여러 부문에서 현지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발표('22.3)
 - 경제의 4가지 핵심 영역(서비스, 제조, 무역, 기업)에 걸쳐 방향을 제시하고 별도의 전략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ESG), Trade 2030* 달성 위한 추진방향 발표('22.9)
 - * Trade 2030 : 싱가포르 경제 2030 계획의 일환으로, 무역량 확대를 목표로 함
 - (기업) 글로벌 수요에 따른 신제품(식물성 치즈, 바이오 연료 등) 개발 및 거래를 통해 글로벌 트레이더로 성장
 - (수출경로) 재수출 및 환적 흐름 포착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강조
 - (역외무역) 신흥지역(중남미·중동)으로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역외무역 확대

〈 싱가포르 역외무역 및 수출 주요 품목 〉

순위	역외무역	수출	
	기여도 높은 부문	상위 수출 품목	상위 수출 서비스
1	에너지 및 화학	전자제품	수송
2	금속 및 광물	석유	금융
3	농산물	전문기계	광고 및 시장조사
4	-	석유화학제품	경영관리
5	-	의약품	정보통신

자료: ESG

〈 싱가포르 역외무역·수출 현황 및 목표 〉

연도	역외무역	수출
2010	7,000억 미국달러	6,180억 싱가포르달러
2020	1조 미국달러	8,050억 싱가포르달러
2030(목표)	2조 미국달러	1조 싱가포르달러

자료: ESG

■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한 내수 경쟁력 확보 노력 지속

- 싱가포르 정부, Budget 2022 통해 기업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방향 설정('22.3)
 -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2억 싱가포르달러), 생산성 향상(6억 싱가포르달러) 등 현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배정
 - 코로나19 타격을 받아 회복이 더딘 산업군(관광, 식음료, 소매 등) 대상으로 일자리 및 기업 지원 패키지 배정(총 5억 싱가포르달러)
 - 3년 연속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출을 위한 세입 확보 수단으로 GST(상품서비스세)·개인소득세·법인세 등 인상 발표

〈 정부의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 (2022 회계연도) 〉

구분	정부 목표	주요 방안
싱가포르 사회 경쟁력 지원	Invest in new capabilities	디지털 역량 강화, 현지 기업 경쟁력 강화, 현지 노동력에 대한 투자, 외국인 근로자 대한 조치 등
	Renew & strengthen social compact	저임금 노동자 지원, 어린이 지원, 헬스케어 등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	Provide immediate relief	직업 및 기업 지원 패키지, 재정 지원 등
친환경	Advance green transition	탄소세 인상, 탄소저감 전환 지원, Singapore Green 2030, 전기 교통수단 도입 가속화 등
세금 인상	Build a fairer & more resilient tax system	GST 인상
		개인 소득세 및 재산세 인상
		법인 소득세 인상

자료: MOF 발표자료 기반으로 정리

나. 디지털 경제 확대

■ 금융과 디지털의 결합, 디지털 경제 활성화

- 싱가포르 통화청(MAS), 금융 부문 202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 전망('22.9)
 - 금융 부문, '21~'25년 동안 연평균 4~5% 성장 및 매년 평균 3천~4천여 개의 순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선도적 국제금융센터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금융 서비스 산업의 혁신 로드맵으로 "ITM 2025(Industry Transformation Map)" 발표
 - * ITM 5가지 핵심전략 : ①자산군 강점 강화, ②금융 인프라 디지털화, ③아시아의 Net-Zero 전환 촉진, ④금융 네트워크 미래 형성, ⑤숙련된 인재 양성
- MOU 체결을 통해 디지털 결제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 디지털 결제를 통해 개인, 무역, 투자와 같은 양자 거래에서 현지 통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MOU 체결
 - 싱가포르 통화청(MAS)-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IFSCA), 핀테크 분야 규제 협력 및 파트너십 촉진 위한 협정 체결('22.9)

- 싱가포르 통화청(MAS)-인도네시아 은행(BI), MOU 서명하며 양국 간 QR 결제 연동작업 착수('22.8)하였으며 '23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총재, 이에 대해 양국 간 금융 협력 강화 기대된다고 발표

다. 지속가능성 실천 촉구

■ 정부 주도의 'SG Green Plan 2030'을 기반으로 녹색성장 추진 기조 지속

- 공공 부문 탄소 배출 절감, 녹지 및 친환경 건물 확대, 에너지 저탄소 실현 등 종합적인 친환경 실현 방향 제시 (세부 내용은 '정책 환경' 참고)

■ 산업별 친환경 전환 및 국가 간 협력 확대

- 서비스·제조·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서의 지속가능성 촉구
 - (금융)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규모로 볼 때, 아세안 최대 지속가능한 금융시장이며, 금융 부문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함. 금융과 핀테크 기술 등이 결합한 ESG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물리적 허브도 설립하였음
 - (에너지) 싱가포르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달성하는 목표 발표('22.3, EMA, Energy Market Agency).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재생가능 전력을 수입할 계획이며, 수소에너지·태양열 에너지 등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 노력을 계속할 예정
 - (자동차) 204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0년까지 모든 신차를 "청정 에너지" 모델로 전환하고자 함
 - (반도체) 제조업 및 반도체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 전략이 필요하며(싱가포르 MTI), 에너지 가격 급등 및 탄소세 인상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싱가포르 반도체 협회(SSIA)) 등 친환경 실현 노력이 계속하여 촉구되고 있음.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에서는 추후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친환경 에너지 확보 위해 상-아세안 국가 간 협력 확대
 - (인도네시아) 탄소 배출권 프로젝트, 탄소 저장, 지역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솔루션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의 자금 조달 솔루션 등을 모색할 예정
 - * 탄소 가격, 자연 기반 솔루션 및 접근방식, 청정 기술 및 솔루션, 녹색 금융 등 4가지 핵심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기후 변화 파트너십 체결('22.3)
 - (라오스) 라오스의 재생에너지 배치, 국가 간 전력 거래를 위한 지역 전력망 및 그리드 상호 연결 개발, 재생에너지 측정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한 싱가포르-라오스 MOU 체결('22.09)
 - (캄보디아) 양국 간 청정 에너지 솔루션 발전·그린 에너지 가능성 연구 등 협력 예정('22.09)
 - (브루나이) 양국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신형 저탄소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분야에서 양자 협력 강화 예정('22.08)
 - * 에너지, 녹색경제, 식량 및 의료 공급망 탄력성 등을 포함한 MOU에 해당

라. 기타

■ 싱가포르 세금 인상 계획

* Budget 2022 발표 내용

- (상품서비스세) GST 세율 인상
 - (세율) 현행 7%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p씩 올라 최종 9%로 인상
- (탄소세) 탄소세 현행 배출량 톤당 S\$5를 최대 S\$80으로 변경
 - (세율) 현행 탄소 가격은(톤당 S\$5*) 2023년까지 유지되며, 2024년과 2025년에 S\$25, 2026년과 2027년에 S\$45로 단계적으로 인상한 후 2030년까지 배출량 톤당 S\$50~80가량으로 인상할 예정
 - * 25,000t CO₂e 이상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내보내는 시설에 대해 탄소세율이 톤당 S\$5 납부 대상
 - (정부 대책) 싱가포르 기업을 대상으로는 중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탈탄소화 솔루션 구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조치를 검토 중
- (기타)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소득세, 주택 재산세, 고가차량 세율 등 인상 예정
 - (개인소득세) 2024년부터 개인소득세 최고 마진율이 인상될 예정이며,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의 소득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여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율이 적용됨
 - (재산세) 세율이 2023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단계로 조정, 비거주(non-owner occupied) 주택은 현행(10~20%) 보다 상승한 12~36%로 인상되며 고급 부동산에 대한 인상은 더 높아질 예정

■ 기타

- 주룽 항구(Jurong Port)에 위치한 싱가포르 최초의 통합 건설 단지 운영 예정
 - 건설 산업의 주요 공급망 주체를 한자리에 모아 협업은 물론 자원과 시설을 수월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로 건설하였으며 2022년 12월부터 운영될 예정
 - * 싱가포르 국가개발부(National Development) 장관, 건설 시설을 하나로 통합하면 건설 부품을 생산할 때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
 - * 싱가포르 BCA(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 공급망 역할을 기대한다고 발표
- 싱가포르 창이공항 이용 여행객 요금 인상
 - 창이공항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22년 11월 1일부터 공항 요금 및 부과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될 예정
 - * 인상 전 기준 수수료는 S\$52.30이며, 여기에는 승객 서비스 및 보안 수수료(PSSF) S\$35.40, 항공 부담금 S\$6.10, 공항 개발 부담 S\$10.80이 포함됨
 - '22년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총 S\$59.20까지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 이후 2023년 4월 1일, 2024년 4월 1일부터 여객 서비스 및 보안 요금이 단계적으로 다시 인상될 예정
- "Healthier SG"를 통한 싱가포르 의료 시스템 개혁
 - 의료 전략으로 발표된 Healthier SG는 예방 치료에 중점을 두며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함
 - 주치의를 통한 거주자 예방 진료 제공, 정기 건강검진 제공, IT-인력개발·자금조달 정책 설정 등의 기능이 포함됨



2023

싱가포르 진출전략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 하에 집권체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23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음.
- ※ [경제/산업] '22년 2분기 기준 제조 분야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도 지속 성장하며 '21년에 이어 경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 [정책] 반도체, 친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자국민 고용 기회 확대와 자국 내 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가. 정치 환경

■ 안정적인 정치체제

- 의원내각제 정치체제
 -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정치 및 행정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
 - 여당으로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 야당으로는 노동자당(Worker's Party, WP) 등이 있음
-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 집권 유지, '23년 차기 대선 예정
 - '20년 선거 결과, PAP가 전체 93석 중 83석을 차지하여 싱가포르 차기 정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되었음
 - 단, PAP가 승리를 거두었으나 지난 '15년 총선 때의 승리(69.9%)에 비해 '20년에는 지지율(61.2%)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PAP 당수이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리로 재임 중
 - 싱가포르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차기 대선은 2023년 6~9월경 진행 예정
 - * 지난 대선은 2017년 9월에 이루어졌으며 인민행동당(PAP) 소속의 할리마 야콥이 당선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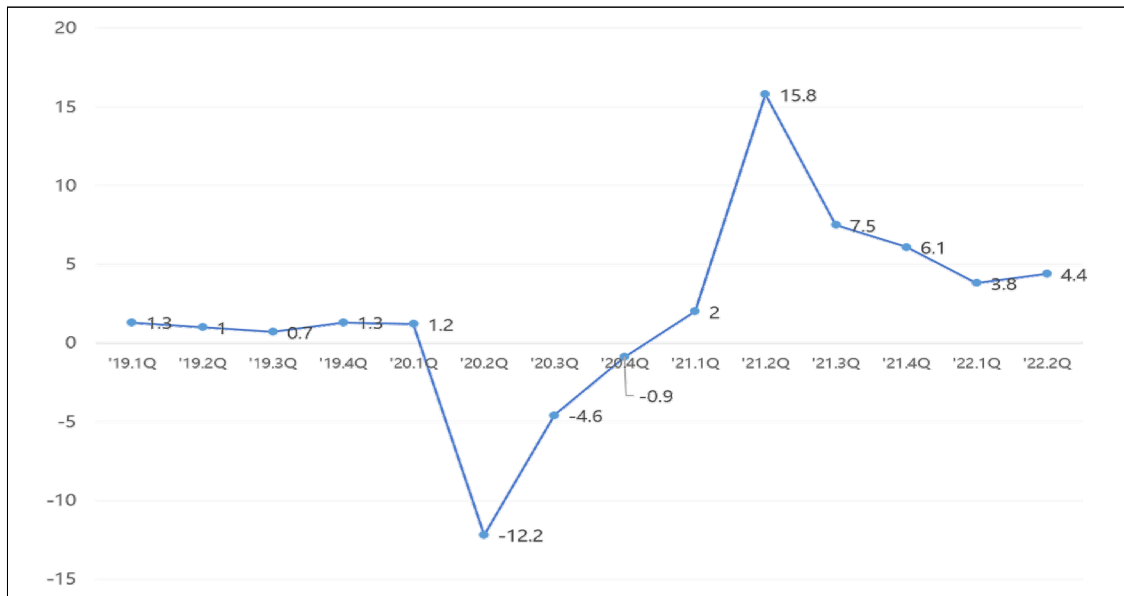
나. 경제 환경

■ 싱가포르 '22년 경제 지표 양호,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2022년 경제성장률 3~4%로 하향 조정('22.08)
 - '21년에는 7.6%의 경제 성장을 보였으나 러-우크라 사태, 글로벌 공급망 대란, 인플레이션 등 영향으로 '22년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하면서 다소 완화된 경제성장률 예상됨
 - * MTI, '22년 경제성장률 기존 전망치인 3~5%에서 3~4%로 전망 폭 축소('22.08)

〈 싱가포르 최근 3개년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2019~2022년) 〉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 바탕으로 싱가포르 무역관 작성

● 주요 산업별 경기 회복 동향

- (제조업) 제조업 부문은 운송 엔지니어링, 일반제조, 전자 및 정밀 엔지니어링의 생산량 확대에 힘입어 '22년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함
- (서비스업) 서비스 생산 산업(Service producing industries)은 '22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을 기록하며 숙박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였음
 - * 숙박업의 경우, 해외 방문객 증가로 관광 수요가 개선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격리 시설 수요가 감소해 업종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분기별 계절 조정 기준 숙박업은 2분기에 22.5% 성장함

〈 싱가포르 최근 1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 〉

구분	2021년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1분기	2분기
상품제조산업	23.0	11.7	13.6	13.4	5.0	5.3
제조업(Manufacturing)	18.2	7.9	15.5	13.2	5.5	5.7
건설업(Construction)	118.9	69.9	2.9	20.1	2.4	3.3
서비스산업	11.5	6.8	4.4	5.6	4.7	4.8
도매업(Wholesale Trade)	3.0	5.5	3.3	3.9	4.8	1.9
소매업(Retail Trade)	51.8	0.9	4.3	10.2	4.7	11.5
운송저장업(Transportation&Storage)	22.2	9.2	7.5	5.0	4.3	5.1
숙박업(Accommodation)	10.4	-5.7	-5.1	1.7	-9.4	-5.3
요식업(F&B Services)	36.0	-4.1	-1.5	3.0	1.9	28.0
정보통신업(I&C)	14.4	13.9	11.2	12.2	10.1	8.1
금융보험업(Finance&Insurance)	10.4	8.5	5.6	7.4	3.7	1.6
부동산(Real Estate)	29.2	19.9	1.6	10.7	10.1	11.7
전문서비스업(Professional Services)	11.8	5.9	4.9	4.4	7.6	6.8
행정지원서비스업(Admin&support)	-0.1	0.2	2.5	-3.8	4.0	9.2
기타서비스업(Other Services)	16.5	3.8	2.4	5.2	1.9	5.7
전체	15.8	7.5	6.1	7.6	3.8	4.4

주: 전년 대비, 2022년 9월 기준 최신자료
 자료: 싱가포르 MPI

■ 싱가포르 물가 상승 13년 만에 최고치 경신

- '22년 7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4.8% 기록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 경신
 * 2008년 11월 근원 인플레이션 5.5% 기록
- CPI 전 품목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7.0% 상승했으며, 전기 및 가스, 민간 운송, 식품 순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0%, 22.2%, 6.1% 상승했음('22년 7월 기준)

〈 싱가포르 주요 카테고리별 인플레이션 (2022) 〉

Category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CPI 전 품목 (CPI All Items)	4.0	4.3	5.4	5.4	5.6	6.7	7.0
MAS 근원 인플레이션 (MAS Core Inflation)	2.4	2.2	2.9	3.3	3.6	4.4	4.8
식품 (Food)	2.6	2.3	3.3	4.1	4.5	5.4	6.1
서비스 (Services)	2.4	2.0	2.6	2.5	2.6	3.4	3.5
소매 및 기타 상품 (Retail & Other Goods)	-0.3	0.2	0.4	1.6	1.8	3.1	2.8
전기 및 가스 (Electricity & Gas)	17.2	16.7	17.8	19.7	19.9	20.0	24.0
민간운송 (Private Transport)	14.0	17.2	21.5	18.3	18.5	21.9	22.2
숙박 (Accommodation)	3.1	3.3	3.5	3.9	4.0	4.2	4.6

주: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
자료: MAS 발표자료

■ 글로벌 교역 증가 추세,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모두 상승

- '22년 1~8월 싱가포르 총 교역액은 6,764억 USD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GTA)

 - (교역) 주요 교역국으로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 그 뒤를 이어 말레이시아, 미국 순으로 나타났음
 - * '22년 교역 비중(1~8월) : ①중국(12.5%), ②말레이시아(11.1%), ③미국(9.6%), ④대만(8.6%), ⑤홍콩(6.2%), ⑥인도네시아(5.6%), ⑦한국(5.2%)
 - (수출) '22년 8월 누계 기준 싱가포르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12.5%), 홍콩(11.3%), 말레이시아(10%) 순이며 주요 수출제품으로는 전자집적회로(HS 8542),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HS 2710)로 나타남
 - (수입) '22년 8월 누계 기준 싱가포르의 최대 수입국은 대만(12.7%), 중국(12.6%), 말레이시아(12.3%) 순이며 주요 수입제품은 전자집적회로(HS 8542),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HS 2710), 원유(HS 2709)로 나타남
- '22년 2분기 총 상품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28.1%, 서비스 교역 12.9% 증가(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 (상품) 석유(69.5%)와 비석유(19.9%) 교역이 모두 상승한 결과이며, NODX(Non-oil Domestic Exports)는 '22년 2분기 기준 전자 및 비전자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9.1% 성장하였으나 전 분기(11.4%) 대비 성장 속도는 완화된 것으로 보임
 - (서비스) '22년 1분기(9.8%)에 이어 2분기 역시 성장세 이어가고 있으며, '21년 서비스 교역 성장세(6.8%)보다 높은 수치임

■ '23년 다소 완만한 추세로 경제성장 계속될 것으로 기대

- 싱가포르 정부 및 국제기구, 2023년 싱가포르 경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대외 리스크에 따른 영향 고려, 싱가포르 '23년 경제전망치 2.6~3.0%로 발표
 - 동남아시아 6개국 중 싱가포르의 '23년 경제성장 전망치가 가장 낮게 책정됨
 - * 아시아개발은행(ADB) 기준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중 비교
 - 특히, 기존 전망치 대비 수정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며 '22~'23년 성장세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싱가포르 경제성장 2022년 3.7%, 2023년 3.0%로 전망
 - 당초 발표했던 동남아시아의 '22년 GDP 성장률 4.9%에서 5.1%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싱가포르의 '22년 GDP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인 4.3%보다 낮은 수치인 3.7%, '23년 역시 3.2%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
 - 주요 교역국 대비 느린 성장세,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 하방 리스크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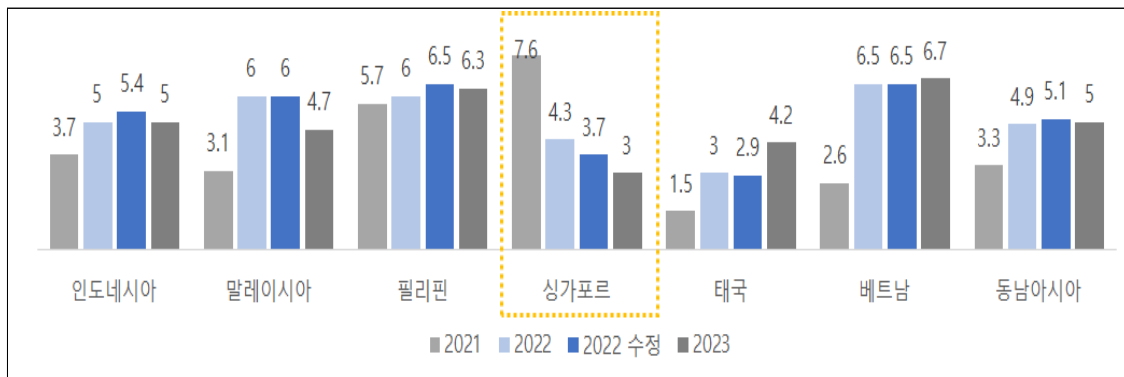
〈 주요 경제기관 및 기구의 싱가포르 경제성장률 전망치 〉

기관 분류		싱가포르 정부	국제기구	
기관명		통상산업부(MTI)	IMF	ADB
2022년	기존 전망치	3.0~5.0	4.0	4.3 ('22.4)
	수정 전망치	3.0~4.0	3.7('22.7)	3.7 ('22.9)
2023년	전망치	-	2.6('22.7)	3.0 ('22.9)

자료: 기관별 보고서

〈 ADB의 동남아시아 6개국 2021년 GDP 성장률 및 2개년 전망치 ('22.9 기준) 〉

(단위: %)



주: 동남아시아에는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이 포함됨
 자료: ADB

다. 산업 환경

■ 싱가포르 산업 구조 개황

- 서비스업이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 GDP 기여도는 제조업에서 최고치
 - '21년 기준, 싱가포르 GDP에서 각 산업별 구성은 “서비스 제조 산업(69.8%)”, “상품 제조 산업(26.4%)” 및 “기타(3.8%)”로 이루어져 있음
 - '22년 2분기 기준, 제조업이 각 부문별 GDP 기여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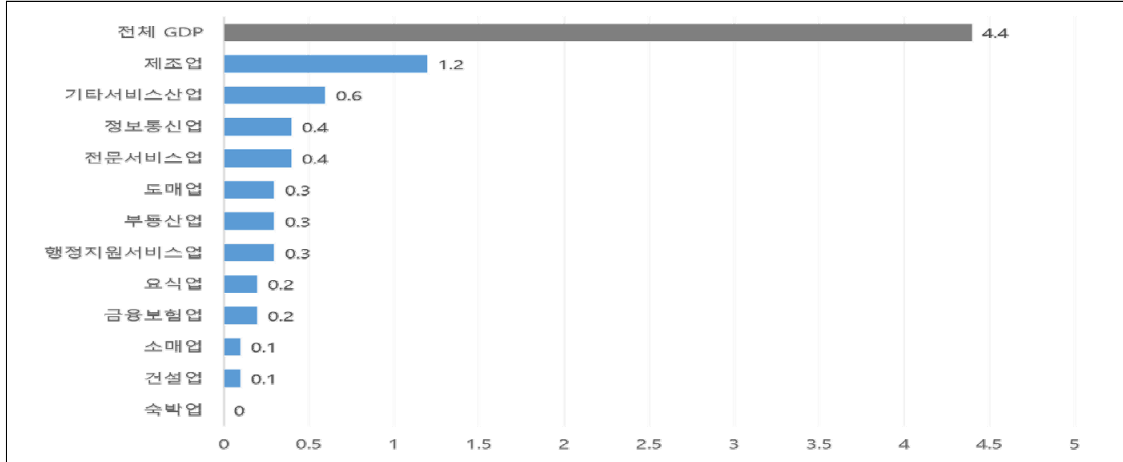
〈 2021년 GDP 산업 구성 (비중) 〉

(단위: %)

구분	비중	세부분류	비중
상품 제조 산업 (Good Producing Industries)	26.4	제조업	22.3
		건설업	2.9
		기타	1.2
서비스 제조 산업 (Services Producing Industries)	69.8	도매무역업	17.9
		금융보험업	14.6
		운송및저장업	6.1
		전문서비스업	5.8
		정보통신업	5.6
		행정및지원서비스업	3.6
		부동산업	2.9
		소매업	1.4
		식음료서비스업	0.9
		숙박업	0.5
		기타서비스산업	10.5
기타	3.8	-	-
계	100	-	-

자료: MTI

〈 2022년 2분기 GDP 성장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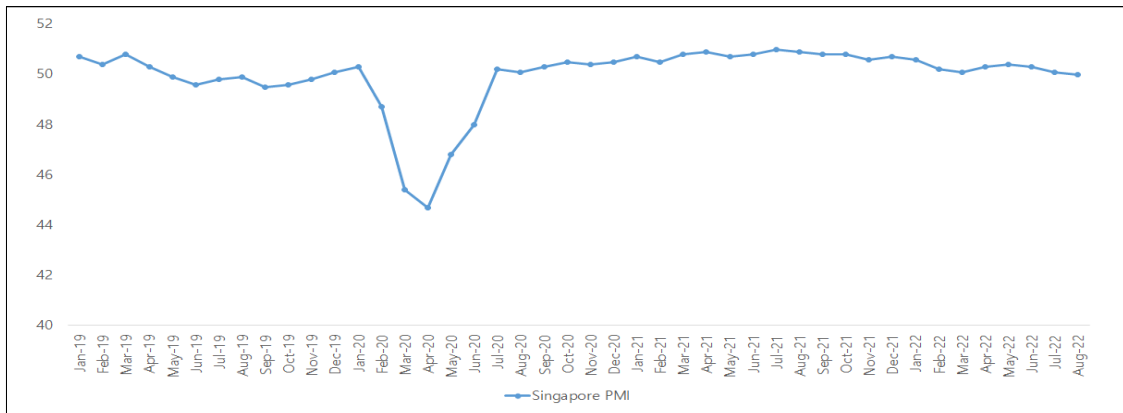
자료: MTI

제조업

제조업, 2022년 싱가포르 경제성장 주요 견인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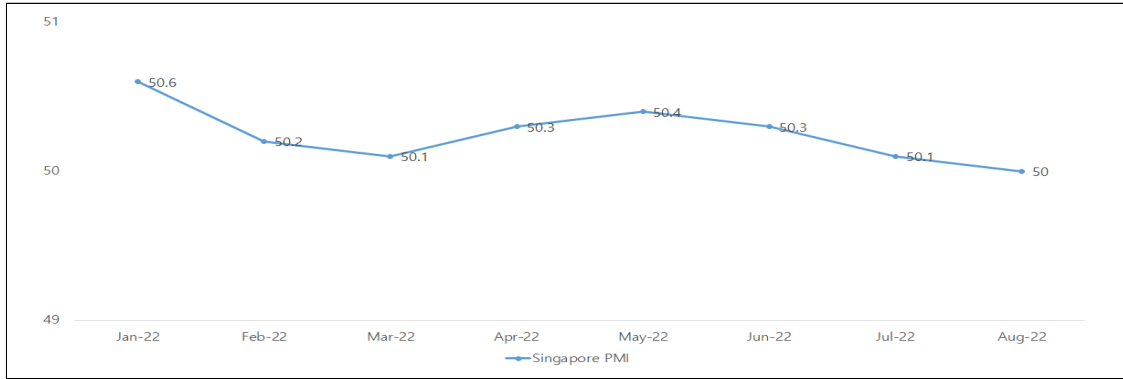
- 제조업 부문이 '22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5%, 5.7% 성장
 - * '21년 제조업 전년 동기 대비 13.2% 성장 기록
- 싱가포르 제조업생산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22년 8월 50.0으로 더디지만 계속하여 확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싱가포르 최근 3년 PMI 추이 〉



자료: SPI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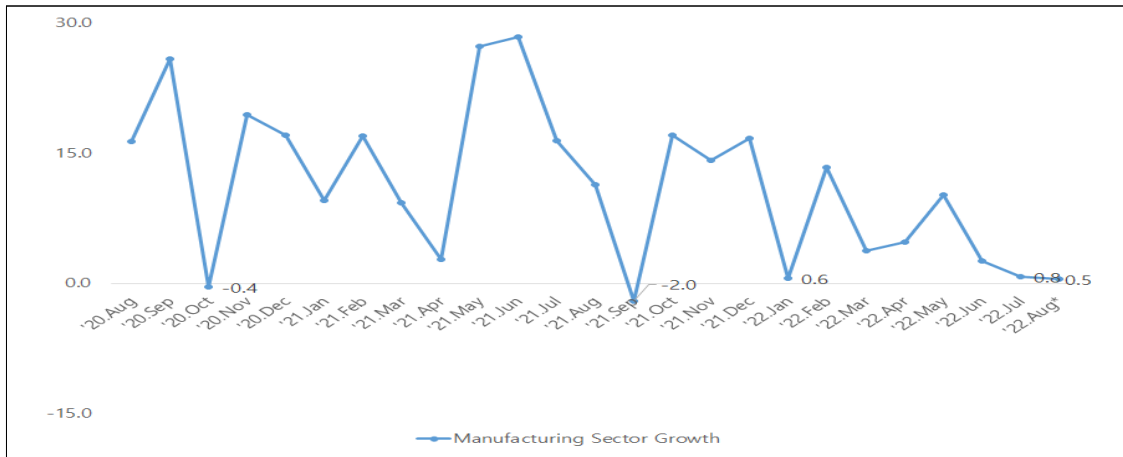
〈 2022년 1~8월 싱가포르 월별 PMI 지수 추이 〉



자료: SPIMM

- '22년 상반기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지난해 성장 속도의 절반 수준
 - '22년 8월 제조 생산량의 성장률은 '21.9월 이후 가장 낮은 0.5%를 기록했으며, 연간 누계 기준('22.1~8월)으로는 4.4% 성장(싱가포르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
 - * 8월 수치는 잠정치

〈 최근 2개년 월별 생산량 성장률 추이 (전년 동기 대비, %) 〉



주: 8월 잠정치 포함('22.9월 기준 최신 자료)

자료: EDB

- 전자 부문의 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22.7~8월)하면서 싱가포르 제조 생산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 전자 부문 생산량은 '22.7월 및 8월(잠정치)에 전년 대비 각각 $\Delta 5.9$, $\Delta 7.8\%$ 기록('22.1~8월 누계 기준 플러스 성장)
 - * 전자 부문 생산은 싱가포르 산업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세부 부문별 성장률 ('22.1~8월 누계, %) 〉

구분	비중	성장률 (전년 동기 비)	비고
전자제품(Electronics)	40	4.9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 저장장치 등
바이오 메디컬 제조(Biomedical Manufacturing)	16.9	△3.3	의약품, 의학기술
화학(Chemicals)	13.3	△3.6	석유, 석유화학 등
정밀공학(Precision Engineering)	14.8	6.1	기계 및 시스템, 정밀 모듈 및 부품
운송공학(Transport Engineering)	7.2	19.9	해양 및 해양 엔지니어링, 항공우주 등
일반제조산업(General Manufacturing Industries)	7.9	13.4	인쇄, 식품, 음료 및 담배, 기타
전체 제조업(Total Manufacturing)	100	4.4	
바이오 메디컬 제외 제조업	83.1	5.9	

주: 8월 잠정치 포함('22.9월 기준 최신자료)
 자료: EDB 통계

● 부문별 '22년 현황 및 전망

- * EDB 발표자료('22.7~12월 전망, '22년 1~8월 성과(8월 잠정치) 기준)
- (반도체) 반도체 부문은 '22년 8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2년 하반기 전망에서 글로벌 칩 부족 사태를 감안, 칩 생산 상태는 유지할 것으로 보임
 - * 싱가포르 제조업 전체 성과 중 반도체 비중은 31.8%로 가장 높음('22년 8월 발표 기준)
 - * GlobalFoundries(반도체 파운드리), UMC(반도체 파운드리), Siltronic(웨이퍼 제조업체) 등이 싱가포르에 생산공장을 확대 혹은 신설하고 있음
- (바이오 메디컬) '22년 8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제약 분야는 감소(△10.5%), 의료기술은 증가(+7.4%)하였음. 기업 공급망 제약 및 비용 상승 부담으로 제약 및 의료기술 부문의 하반기 비즈니스 전망 부정적임. 특히, 제약 부문의 생산량 향상이 예상되나 그에 반해 의료기술 부문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석유화학) 석유 분야는 '22년 8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성장(+6.2%)하였으나, 석유화학은 감소(△10.5%)하였음. '22년 하반기에는 수요 약화 및 원재료·운영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
 - * 싱가포르 내에서 주롱 섬(Jurong Island)이 정유, 석유화학 및 특수화학 활동의 중심지로서 역할
 - * 싱가포르는 정제된 석유(Refined Petroleum) 수출국 중 세계 4위('20년 기준, OEC 발표)
- (해양 및 해양 엔지니어링) '22년 8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성장(+22.4%)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높은 유가 속에서 석유 등 관련 활동이 증가하여 석유 및 가스 장비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 싱가포르 해양 및 해양 엔지니어링(M&OE) 산업은 선박 수리, 조선, 해양 엔지니어링, 유전 장비 제조, 해양 공급 선박의 건조 및 용선 등에 분야에서 전 세계 수요에 서비스를 제공해옴

■ 건설업

- 2021년 전체 건설 수요는 전년 대비 42.2% 증가한 299억 싱가포르달러 규모
 - 주로 공공 주거 및 인프라 프로젝트, 민간 상업시설 등이 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
 - (공공 부문) 수요는 '21년 46.6% 증가하였으며, 공공 토목 및 주거용 건물 수요 확장의 영향
 - (민간 부문) 수요는 '21년 36.3% 증가하였으며, 민간 상업시설·사업용 건물·주거용 건물 프로젝트의 영향

〈 2021년 세부 부문별 계약 수주 결과 (십억 싱가포르달러)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전체	29.9	17.8	12.1
거주(Residential)	9.2	5.3	3.9
상업(Commercial)	2.8	0.1	2.7
산업(Industrial)	5.0	0.9	4.1
기관 및 기타(Institutional & Others)	3.4	2.3	1.0
토목 공학(Civil Engineering Works)	9.6	9.2	0.5

자료: MTI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S\$250억~320억 규모로 건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싱가포르 건설청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
 - 주요 수요는 공공 부문이 주도하여 동기간 연간 S\$140억에서 S\$180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부문 건설 수요는 동기간 연간 S\$110억에서 S\$140억 사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소매 및 유통업

- 코로나19 이전 대비 저조하지만 회복세를 보이는 소매시장
 - '21년 싱가포르 소매업은 전년 대비 10.2% 성장(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 시계 및 보석(+41.4%), 의류 및 신발(+28.6%), 컴퓨터 및 통신장비(+25.6%) 품목이 주로 성장
 - '21년 소매 판매량 기준, '20년 위축되었던 소매시장('20년 기준 전년 대비 △15.8%)에 비해 회복세이나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6.8% 낮은 수준
- 싱가포르 소매업 규모
 - 싱가포르의 2020년 소매업 규모는 매장 수 총 2.9만여 개, 영업이익 414.9억 싱가포르달러 규모로 나타남(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
 - 일반 상점에는 미니마트·편의점 및 종합상점(2,524개), 슈퍼마켓·하이퍼마켓(455개), 백화점(123개), 불특정 상점(896개) 등이 포함됨

〈 2020년 싱가포르 소매업 현황 〉

부문별	매장		영업이익	
	개수	비중(%)	금액(백만 싱가포르달러)	비중(%)
General Merchandise	3,998	13.8	12,937	31.2
Personal Goods	13,292	45.8	11,173	26.9
Transport Equipment	1,866	6.4	8,565	20.6
Household Equipment	4,087	14.1	6,078	14.6
Others	5,782	19.9	2,740	6.6
Total	29,025	-	41,493	-

주: 2022.9월 기준 최신 자료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

- 코로나19 및 정부의 전자상거래 촉진 지원방안 등의 영향으로 디지털화 촉진,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시장 꾸준한 성장 기대
 - '21년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시장은 59억 USD로 평가되며, 전자상거래 이용객은 3백만 명 이상을 기록해 5년 내 100억 USD 규모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 미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발표 내용
 - '22년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18.3% 성장한 92억 싱가포르달러로 예상되며, '21년 디지털 결제 솔루션(Paypal, Apple Pay, Grab Pay, Google Pay 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30.6% 기록
 - * Globaldata 발표 내용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ESG)은 “E-Commerce Booster Package” 통해 특정 전자상거래 플랫폼(라자다, 쿠팡, 쇼피 등)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음('21년 기준)
 - * 자격이 인정되는 중소 소매업체 대상 일부 비용을 지원 등

■ 금융업

-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 부문 기술 채택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니셔티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글로벌 금융 허브, 더 나아가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싱가포르 금융 시장
 - 싱가포르 금융 부문 '21~'25년 연평균 4~5% 성장 전망(싱가포르 통화청(MAS))
 - 싱가포르 통화청(MAS), 산업별 혁신 로드맵 “ITM 2025(Industry Transformation Map)” 중 금융 서비스 산업의 비전 및 5가지 핵심 성장전략 발표('22.9)
 - * (비전)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고 아시아 발전을 지원하며 싱가포르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선도적인 국제 금융 센터로 발전시키는 것
 - * (전략) ①자산군 강점 강화, ②금융 인프라 디지털화, ③아시아의 Net-Zero 전환 촉진, ④금융 네트워크 형성, ⑤숙련된 인재 양성

〈 금융 산업 ITM 2025 전략 〉

전략	내용	분야
자산군 강점 강화	금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역내 및 글로벌 핵심 역할을 수행할 자산군 역량을 심화	외환거래 생태계 확장, 자산관리, 녹색 핀테크·인공지능 등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등
금융 인프라 디지털화	디지털 인프라 및 플랫폼 개발을 촉진	채권 시장 인프라 개선, 자금 결제 유틸리티 개발 등
아시아의 Net-Zero 전환 촉진	Net-Zero 촉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전환 자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자금 조달 솔루션을 통한 실물경제의 탈탄소화, 데이터 유틸리티 구축(ESG 데이터 접근성 향상), 친환경 핀테크 등
금융 네트워크 미래 형성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역 경제-국경 간 결제 연계, 국경 간 지불, 디지털 통화 등
숙련된 인재 양성	인력 육성을 위해 금융업계 및 제3자 파트너와 협력	재무 전문가 교육,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 인재 육성 등

자료: MAS

- 디지털 결제 시장을 활성화하는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
 - 싱가포르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1천여 개의 핀테크 기업이 운영 중('22.6월 기준, KPMG)
 - 디지털 결제 솔루션(전자지갑), P2P(Peer-to-Peer) 서비스, 국가 간 실시간 결제 시스템, BNPL(Buy Now Pay Later) 등 디지털 결제 시장 활성화
 - * 싱가포르 디지털 결제 부문의 총 거래액은 '22년에 180억 4,800만 USD로 기대되며, 연간 성장률(CAGR 2022~2026)은 21.53%로 예상(Statista)
 - * 소비자들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Paynow', 'Grabpay' 등을 활용
(Paynow :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출시한 플랫폼으로 참여 은행 고객 간 실시간 이체 가능)
(Grabpay : Grab社가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직불카드로 충전하거나 연동하여 전자지갑으로 사용)

■ ICT

- 디지털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보통신산업
 - ICT 혁신 기술 및 솔루션을 활용한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정부 청사진(Digital Government Blueprint, DGB)”을 수립한 바 있음

〈 디지털 정부 구축을 위한 싱가포르의 6가지 전략 〉

	세부 내용
1	시민 및 비즈니스 요구에 대한 서비스 통합
2	정책, 운영 및 기술 간의 통합 강화
3	정부의 ICT 인프라 재설계
4	안정적이고 탄력적이며 안전한 시스템 운영
5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
6	시민 및 기업과의 공동 창조 및 기술 도입 촉진

자료: Govtech singapore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ICT 분야에 약 126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하며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경제 관련 업계와 협력을 위한 인프라 등을 마련함
- FY2022 기준, ICT 조달에 FY2021과 동일하게 최대 38억 싱가포르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정부 디지털 서비스 혁신 및 인프라 재설계 등에 사용할 계획
 - * FY22 기준, ICT 지출은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개발에 70%(26억 싱가포르달러)가량이 투입될 예정

라. 정책·규제 환경

■ 최근 2개년 정부 정책

- ('22) 싱가포르 경제 2030 계획(Singapore Economy 2030) 수립
 - 2030년까지 싱가포르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등 서비스·제조·무역·기업에 대한 비전을 포함하고 있음

〈 Economy 2030 부문별 내용 〉

영역	내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Economy : 소비자 요구에 따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Digital Economy : 기업들의 디지털화와 디지털경제에서의 역량 강화 지원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ufacturing 2030(M 2030, '21년 발표) : 제조업 부가가치(value-add)를 50%까지 성장 • M2030 Career Initiative : 제조기업들의 인재 유치 지원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 2030 전략 : 2030년까지 수출 1조 싱가포르달러, 역외무역 2조 USD 달성 목표 * 2020년 기준 8,050억 싱가포르달러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terprise 2030 Strategy(Enterprise 2030) : 현지 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 등

자료: MTI

- ('21)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nufacturing 2030” 발표
 - 제조업은 싱가포르 경제에서 약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30년까지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50%까지 성장시키는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
 - 동 계획은 ▲최고의 글로벌 기업 유치, ▲첨단 제조 분야에서의 규모 역량 강화를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제공, ▲산학 협력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
- ('21) 친환경 실현을 위한 “Singapore Green Plan 2030”
 - 정부, 민간, 기업 차원의 범국가적 저탄소 및 친환경 실천 목표 제시

〈 SG Green Plan 5가지 핵심 내용 (*22.6월 기준) 〉

세부 목표	연도별 목표
City in Na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ha 이상 규모로 새로운 공원 개발 (2026년) • 연간 나무 심기 비율을 2배로 늘려 1백만 그루 이상 나무 심기 등 (2030년) • 1000ha 녹지 신규 조성 등 (2035년)
Sustainable Liv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시민] 1인당 일일 매립 쓰레기 양 20% 감소 (2026년), 1인당 하루 매립 쓰레기 양 30% 및 하루 물 소비량 감소 (2030년) • [녹색 통근] 대중교통 점유율 확대, 철도망 및 자전거도로 확장 (2030년) • [학교 노력 강화] 싱가포르 내 전체 학교의 최소 20% 탄소중립화, 학교 부문의 순탄소 배출량 3분의 2 감소 (2030년)
Energy Re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에너지] (종합)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단계적 감소와 같은 국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 수행 -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치, 청정 전력 수입으로 전력 공급 다변화 등 (2030년) • [친환경 인프라 및 건물] 담수화 공정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 Tuas Nexus 활용방안 등 (2025년),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건물 등 (2030년) •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구] 기존 HDB 지역의 에너지 소비 감소 (2030년) • [청정 에너지 차량] 디젤 자동차 및 택시 신규 등록 중단, HDB 내 EV 설치 (2025년), 전국 6만여 개 충전소 설치 등 (2030년)
Green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탄소 효율 부문에서의 신규 투자 모색 •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지속가능성 실현 - 지속가능 에너지 및 화학단지로서의 주룽 섬 활용, 지속가능한 관광지화, 녹색 금융 및 서비스 선도, 탄소 서비스 허브 등 (2030년)
Resilient Fu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급 식량 비율 30% 확대 (2030년),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해안선 관리 (2030년)

자료: SG Greenplan(싱가포르 정부) 발표 자료 바탕으로 무역관 작성

■ ESG 관련 동향

● 싱가포르 통화청(MAS), 금융시장의 지속가능성 실현 위한 노력 지속

- 싱가포르의 아세안 누적 녹색 및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및 대출 발행*의 50% 점유율을 차지해 아세안 최대의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MAS 발표자료)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녹색 및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로 398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이 싱가포르에서 발행

- 기관 운영, 재무 감독 및 금융 부문 개발 등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실천

-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 간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Project Greenprint*, ESG 공개 플랫폼 등을 시작했음

* Project Greenprint :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의 모음이며 ▲Green FinTech 생태계 성장 및 솔루션 확장, ▲파트너십 추진, ▲ESG 데이터 흐름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발 등이 목표

- ESG 생태계 촉진을 위한 ESG Impact Hub 설립 ('22.10)
 - 싱가포르 통화청(MAS), “ESG 핀테크 스타트업-솔루션 제공업체-금융기관-이해관계자” 간의 협업 촉진을 위한 물리적 허브 출시
 - 저탄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전환을 지원하는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발표
 - ESG Impact Hub는 Project Greenprint의 연장선이며, 3가지 측면에서 싱가포르 ESG 생태계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

〈 HUB 설립 관련, ESG 생태계 성장을 위한 3가지 측면 〉

Growing ESG FinTechs	Anchoring ESG Enablers	Supporting ESG Stakeholders
기후 및 지속가능성 데이터의 정확한 측정·보고·검증 측면에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ESG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을 발견, 확장 및 배포를 촉진	지식 파트너, 금융기관 및 투자자를 참여시켜 ESG FinTech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교육 및 역량 워크숍, 리더십 행사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조직	허브를 통해 커뮤니티를 참여시켜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배포

자료: MAS

- 탄소배출권 구매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합작투자회사 CIX(Climate Impact X) 출범
 - CIX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기대하고 있음. CIX는 탄소배출권 거래 디지털 플랫폼인 “Project marketplace”를 '22년 3월 출시함

2 시장 분석

대외개방형 경제를 중심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 시장 다양성 등 장점을 갖고 있어 동남아시아 테스트 베드로서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를 본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진입 장벽이 낮으나 경쟁이 치열하므로 시장 분석이 필요함.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개방형 경제

- 도시국가 형태로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여건으로, 대외개방형 경제 추구
 -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류, 담배제품, 자동차 및 석유제품 외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정책 유지

■ 기업 친화적인 환경

- 싱가포르는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안정되고 일관된 정부 정책을 펼치는 親기업정책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며 국가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17%의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 인프라 등의 이점을 제공해 상당수의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음
 - *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Doing Business 2020,) 중 싱가포르 세계 2위, 국가경쟁력 3위(IMD2022), 국제금융자수 3위(Bloomberg, 2022)

■ 다문화 기반 시장 수요

-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이루어져 새로운 트렌드를 통해 동남아시아 진출을 염두에 둔 글로벌 기업들에게 적합한 테스트 베드 시장으로서 활용 가능함
 - 중국계(74.2%), 말레이계(13.7%), 인도계(8.9%) 및 기타(3.2%)로 구성되며,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
 - 불교(31.1%), 기독교(18.9%), 무교(20.0%), 이슬람교(15.6%), 도교(8.8%), 힌두교(5.0%), 기타(0.6%) 다양한 종교별 인구 구성비를 보임

나. 수출

■ 싱가포르 수출입 동향

- 코로나19 전후로 싱가포르 대외 교역액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21년 기점으로 교역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개년 싱가포르의 수출입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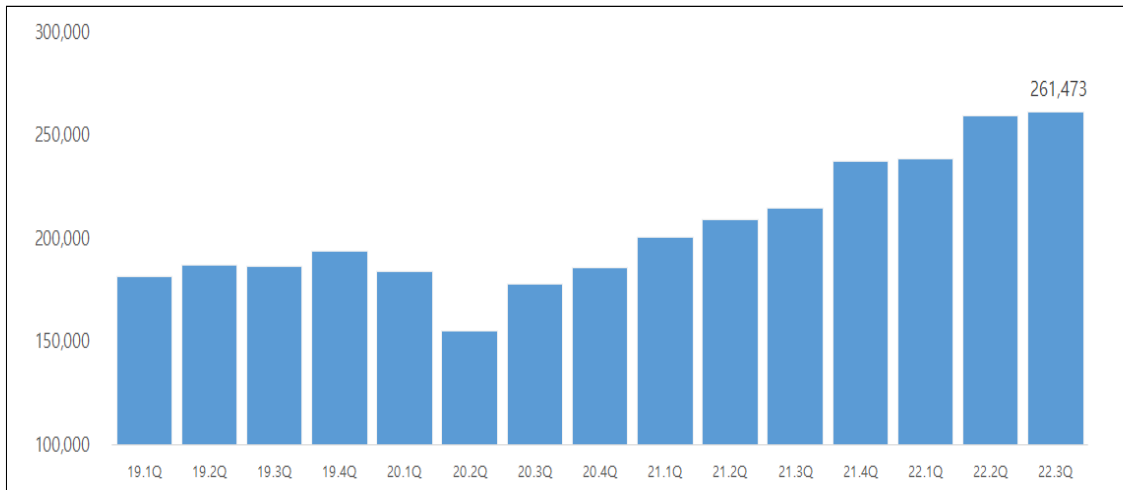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1~9월)
총 교역액	782,265	749,478	703,338	862,834	760,009
수출	411,760	390,421	374,234	456,800	395,459
수입	370,505	359,057	329,104	406,034	364,550

자료: GTA

〈 싱가포르 최근 3개년 분기별 대외교역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TA

- '21년 싱가포르 교역 규모, 전년 대비 22.68% 증가한 8,628억 달러 기록(GTA)
 - 싱가포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21년 기준 약 14.16%이며 그 뒤로 말레이시아(11.10%), 미국(9.12%) 순으로 나타남
 - 한국과의 교역 비중은 4.85%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싱가포르 국가별 교역 동향 및 점유율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9		2020		2021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1	중국	100,672 (13.43)	중국	98,938 (14.07)	중국	122,159 (14.16)
2	말레이시아	82,862 (11.06)	말레이시아	75,162 (10.69)	말레이시아	95,743 (11.10)
3	미국	77,008 (10.27)	미국	74,199 (10.55)	미국	78,663 (9.12)
4	대만	48,762 (6.51)	대만	54,605 (7.76)	대만	74,296 (8.61)
5	홍콩	47,880 (6.39)	홍콩	50,060 (7.12)	홍콩	63,312 (7.34)
6	인도네시아	42,969 (5.73)	일본	35,977 (5.12)	인도네시아	43,950 (5.09)
7	일본	37,020 (4.94)	인도네시아	35,414 (5.04)	대한민국	41,821 (4.85)
8	대한민국	28,926 (3.86)	대한민국	32,349 (4.60)	일본	40,103 (4.65)
9	태국	23,014 (3.07)	태국	23,873 (3.39)	태국	25,389 (2.94)
10	인도	17,808 (2.38)	베트남	16,461 (2.34)	호주	20,250 (2.35)

자료: GTA

■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및 경쟁 동향

- 싱가포르의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은 집적회로, 석유와 역청유, 반도체로 나타남
 - '21년 기준 싱가포르의 對한국 수출은 196억 USD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고, 對한국 수입은 221억 USD로 전년 대비 42.18% 증가함

〈 싱가포르의 對한국 수입 상위 품목 수입액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명	2019	2020	2021
1	8542	전자집적회로	6,103	8,993	12,735
2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외)	3,021	1,713	3,447
3	8486	반도체 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등	273	371	614
4	8473	타자기 및 기타 사무용 기계용 부품	151	145	423
5	3822	진단 또는 실험용 시약 등	2	12	405
상위 5개 품목 수입액(소계) 및 비중			9,550(70%)	11,234(72%)	17,624(80%)

주: 순위는 2021년 기준으로 작성, 비중은 對한 총수입액 중 5개 품목의 수입액 의미

자료: GTA

〈 싱가포르 전 세계 수입 품목 중 상위 5개 품목 경쟁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	순위	국기명	2019	2020	2021
1	8542	전자집적회로	1	대만	24,731(41%)	30,234(42%)	42,570(45%)
			2	말레이시아	9,658(16%)	11,360(16%)	14,737(16%)
			3	대한민국	6,103(10%)	8,993(13%)	12,735(14%)
2	2710	석유와 역청유 (원유 외)	1	말레이시아	9,795(21%)	8,169(26%)	10,836(23%)
			2	중국	7,320(16%)	4,940(16%)	4,950(11%)
			4	대한민국	3,021(7%)	1,713(5%)	3,447(7%)
3	2709	원유	1	아랍에미리트	6,626(27%)	3,426(24%)	6,978(31%)
			2	카타르	4,416(18%)	2,548(18%)	3,565(16%)
			34	대한민국	24(0%)	11(0%)	0(0%)
4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 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1	미국	11,110(57%)	8,044(53%)	8,803(59%)
			2	영국	3,616(19%)	3,142(21%)	2,533(17%)
			16	대한민국	105(1%)	95(1%)	58(0%)
5	7108	금	1	스위스	2,143(21%)	2,116(13%)	3,536(24%)
			2	오스트레일리아	1,600(16%)	1,004(6%)	2,047(14%)
			17	대한민국	169(2%)	524(3%)	31(0%)

주: 순위는 2021년 기준으로 작성

자료: GTA

● (공급망) 반도체(전자집적회로), 싱가포르 對전세계 최대 수출입 품목

- '21년 싱가포르 수입 10대 품목 중 반도체 관련 품목 총 3개: 전자집적회로(1위), 반도체 보울 및 웨이퍼·디바이스(8위), 반도체 디바이스(9위)

* 싱가포르 전 세계 수입 상위 품목(2021년 기준) : ①전자집적회로(HS 8542), ②석유와 역청유(HS 2710), ③원유(HS 2709), ④터보 프로펠러 등(HS 8411), ⑤금(HS 7108), ⑥전화기, 통신기기(HS 8517), ⑦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단위기기(HS 8471), ⑧반도체 보울 및 웨이퍼, 디바이스 등(HS 8486), ⑨반도체 디바이스 등 (HS 8541) ⑩석유가스 및 그 밖의 탄화수소(HS 2711)

- 전자집적회로(HS 8542), 반도체 웨이퍼(HS 8486), 반도체 디바이스(HS 8541) 등 품목은 '21년 싱가포르 수출 10대 품목에도 해당함

〈 싱가포르 전 세계 수출입 10대 품목 중 반도체 비중 〉

(단위: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명	對 전세계 수입		對 전세계 수출	
		수입액	비중	수출액	비중
8542	전자집적회로	94,291	23.22	112,335	24.59
8486	반도체 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등	7,972	1.96	17,684	3.87
8541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 다이오드 등	6,105	1.50	11,242	2.46

자료: GTA

■ 진입 장벽

- 싱가포르의 개방 경제를 지향해 진입 장벽이 낮음
 - 차량, 담배, 석유, 주류제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국제 기준 도입, 투명한 행정,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애로사항도 없는 편임
 - 그러나 그만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해 있어 경쟁이 치열함

■ 수출 성공 사례

- 친환경 선박 기업 진출 사례
 - A사는 친환경 선박 설계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소형 선박용 친환경 전지 및 수소연료 추진 관련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싱가포르 무역관의 첫 오프라인 상담회에 참가하였음
 - 상담 현장에서 싱가포르 B사의 소형선박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화상상담을 통한 사후 미팅을 적극 지원하였음
 - KOTRA의 꾸준한 사후지원으로 전기 추진선을 포함한 보트의 설계에 대한 견적을 의뢰받았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 중임
- 간편 조리식품 기업 진출 사례
 - C사의 간편 조리식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음.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오프라인 요식업이 회복되자 C사는 해외 진출을 통한 시장다변화를 추진하였음
 - 싱가포르를 아세안 지역의 진출거점으로 타겟팅한 동사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KOTRA와 유통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D벤더사에 납품계약을 맺었음. D벤더사는 온라인 유통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왔으나 워드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고민하던 중이었음
 - KOTRA는 코로나19 이후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상품 판촉전 행사를 개최하였음. 이 행사를 통해 C사와 D벤더사는 싱가포르 현지 소비자의 간편 조리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음

다. 투자

■ 對싱가포르 외국인 직접 투자(FDI) 동향

- (최근 동향) 2021년 싱가포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는 991억 USD를 기록하며 2020년 754억 USD대비 31.4% 증가 (유량(Flow) 기준)
 - 이는 2021년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총 유입 규모의 6.3%로, 싱가포르는 미국(U\$ 3,674억), 중국(U\$ 1,809억), 홍콩(U\$ 1,407억)에 이어 전 세계 4대 투자 대상국임

〈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액 및 증감률 〉

집계 기준	2017	2018	2019	2020	2021
유량(Flow)(a)	U\$ 825억 (22.2%)	U\$ 739억 (-10.4%)	U\$ 1,063억 (43.8%)	U\$ 754억 (-29.0%)	U\$ 991억 (31.4%)
저량(Stock)(b)	S\$ 1.57조 (15.9%)	S\$ 1.73조 (10.5%)	S\$ 1.92조 (11.1%)	S\$ 2.14조 (11.3%)	미집계

자료: (a) UNCTAD(2022년 10월 작성일 기준 최신 자료) (유량(Flow) 기준), (b) 싱가포르 통계청(2022년 10월 작성일 기준 최신 자료) (연말 저량(Stock) 기준)

■ 산업별 · 국가별 對싱가포르 FDI 현황

- (산업별) 금융 · 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총 누적 FDI의 약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소매업(14.8%), 제조업(12.0%), 기타 서비스업(10.6%) 순임 (저량(Stock) 기준)

〈 싱가포르 주요 산업별 FDI 현황 〉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181,958	11.6%	235,944	13.6%	241,740	12.6%	257,026	12.0%
건설업	5,201	0.3%	7,259	0.4%	7,904	0.4%	6,624	0.3%
도소매업	280,017	17.9%	277,299	16.0%	280,420	14.6%	317,756	14.8%
숙박요식업	6,746	0.4%	6,277	0.4%	6,379	0.3%	7,436	0.3%
운송저장업	29,745	1.9%	32,086	1.9%	33,013	1.7%	43,711	2.0%
정보통신업	32,382	2.1%	35,976	2.1%	32,500	1.7%	37,524	1.8%
금융보험업	864,441	55.2%	908,790	52.5%	1,035,220	53.8%	1,189,337	55.5%
부동산업	41,415	2.6%	44,854	2.6%	46,569	2.4%	44,805	2.1%
기타 서비스업	110,858	7.1%	165,025	9.5%	223,061	11.6%	227,564	10.6%
기타	14,545	0.9%	17,754	1.0%	16,797	0.9%	9,993	0.5%
총계	1,567,307	100%	1,731,264	100%	1,923,604	100%	2,141,775	100%

주: 싱가포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FDI 통계치는 연말 시점 저량(Stock) 기준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2022년 10월 작성일 기준 최신 자료)

- (국가별)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국가 중 미국(24.7%)이 S\$ 5,287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케이만 군도(11.5%), 버진 군도(7.6%), 일본(6.5%), 영국(5.9%) 순임

* 2020년 기준 한국은 싱가포르 해외 직접 투자국 15위(1.3%)

〈 싱가포르 국가별 FDI 현황 〉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

순위	국가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336,514	21.5%	292,107	16.9%	427,753	22.2%	528,736	24.7%
2	케이만 군도	145,204	9.3%	212,567	12.3%	198,006	10.3%	246,722	11.5%
3	영국령 버진 군도	125,049	8.0%	129,230	7.5%	151,504	7.9%	163,586	7.6%
4	일본	97,742	6.2%	115,879	6.7%	130,828	6.8%	139,948	6.5%
5	영국	84,897	5.4%	87,114	5.0%	101,620	5.3%	127,048	5.9%
6	버뮤다 제도	65,090	4.2%	92,917	5.4%	103,552	5.4%	95,303	4.4%
7	홍콩	61,285	3.9%	61,663	3.6%	75,657	3.9%	89,778	4.2%
8	스위스	38,687	2.5%	60,646	3.5%	66,845	3.5%	74,018	3.5%
9	캐나다	17,939	1.1%	21,994	1.3%	55,744	2.9%	69,677	3.3%
10	룩셈부르크	68,686	4.4%	109,029	6.3%	110,884	5.8%	64,012	3.0%
15	한국	16,523	1.1%	19,723	1.1%	23,906	1.2%	28,512	1.3%
총계		1,567,307	100%	1,731,264	100%	1,923,604	100%	2,141,775	100%

주: 싱가포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FDI 통계치는 연말 시점 저장(Stock) 기준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2021년 10월 작성일 기준 최신 자료)

■ **對싱가포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최근 사례**

- 싱가포르 기업에 대한 대형 M&A 사례가 전체 FDI 유입 증가를 주도
 - * 한국 SK에코플랜트, 싱가포르의 전자 폐기물 처리 기업 'TES' 10억 달러 인수 ('22.2월)
 - * 홍콩계 부동산 투자회사 ESR, 싱가포르 'ARA Asset Management' 52억 달러에 인수 ('21.8월)
 - * 미국 Altimeter Growth Corp과 싱가포르 Grab, 340억 달러 합병인수 ('21.4월)
- 반도체, 의료바이오 등 첨단제조 글로벌 기업의 싱가포르 그린필드 투자 확대
 - * 미국 Global Foundries사, 싱가포르에 4조 원 규모 반도체 제조 공장 신설 ('21.6월)
 - * 영국 Dyson사, 싱가포르로 글로벌 본사 이전 및 향후 11억 유로 규모 투자 계획 발표 ('22.3월)

■ **對싱가포르 투자 진출 유망 산업**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동남아시아 디지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향후 10년 내에 시장 규모가 U\$ 1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많은 IT 거대 기업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전략 거점으로서 對싱가포르 투자 확대 예상
 - * 자료: 「e-Conomy SEA 2019/2020」 (Google, Temasek, Bain&Company)
- 친환경 기술 (Green Tech)
 - 글로벌 기후변화 관심 확대 및 싱가포르 정부의 Green Plan 2030 정책 추진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빌딩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스마트 시티 구현 기술 등 친환경 분야에 민·관 투자 확대세

■ **싱가포르 투자 인센티브 (자료: 싱가포르경제개발청(EDB) 홈페이지)**

- 조세 지원 (PC(Pioneer Certificate Incentive), DEI(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 산업군*, 투자금액, 고용창출, 사업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면제 혹은 5~10%으로 감면**(기본 5년, 이후 연장 가능)
 - * 성장산업(Growing Industries), 선도산업(Globally leading industries), 재무관리업(Finance&Treasury), 항공기 임대업(Aircraft leasing)
 - (참고) 일반적인 싱가포르 법인세는 17%(단일세율)이며,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 또한, 투자가를 비롯한 모든 개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없음 (개인소득세: 0~22% 수준)
- 재정지원 및 현금지원 (LIA(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 REG(Resource Efficiency Grant for Energy))
 - 첨단 제조 기반 강화 산업군에 대해 사업지출* 비용 일부 환급
 - * 제조설비 건설·보수·증축 관련 자본지출금(건물 예비조사, 디자인, 철거, 법률비용 등), 탄소감축 비용 등
- 기타 인센티브
 - 첨단기술 산업에 대해 외국인 채용 규제 완화 및 비자 지원(Tech@SG Programme)
 - 가변자본회사(Variable Capital Company) 적용 특별법 제정('20년)을 통해 다국적 펀드의 재무제표 및 주주명부 공시 의무 완화

■ 싱가포르 투자 진출 진입 장벽

-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World Bank) 2020' 세계 2위로,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 진출 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음
 - 특히 영어 공용, 안정적인 정치·사회, 합리적인 제도,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 유연한 노동시장, 치안 등 다양한 이점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국가로 꼽힘
- 다만,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주택 및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교육비, 외국인 거주비 등)가 싱가포르 투자 진출 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 * 싱가포르는 2020 Cost of Living Survey(Mercer)에서 전 세계 5번째로 생계비가 높은 도시로 선정 (1위 홍콩, 2위 아시가바트(Ashgabat), 3위 동경, 4위 취리히, 11위 서울)
- 또한, 코로나19 이후 자국민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채용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현지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진출 기업 증가

■ 투자 진출 성공 사례

- 인프라 구축 관련 진출 사례
 -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시티 건설 목표 및 인프라 구축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음. 관련 기술을 보유한 A사는 이러한 현지 정부의 마스터플랜 확대에 따른 기회를 포착, 현지 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얻음으로써 현지 법인을 개소하였음. 이에 KOTRA에서는 A사의 현지 법인 설립과 인력 채용에 대한 다방면 지원을 제공하였음. A사는 지속적으로 관련 입찰을 준비하며 진출,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음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협력 의제

가. 교역

■ FTA 체결 현황

- 한·싱 자유무역협정(KSFITA)은 2006년 3월 발효되었으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은 2007년 6월 발효됨
- '21년 12월, 양국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함
 - 한국 입장에서는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이며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호 의미가 있음
 - 디지털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무역 규칙과 규범을 수립함으로써 양국 간의 디지털 경제에서 양자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9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 간에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의사를 밝히고 '21년 10월부터 공식 협상을 개시한 바 있음

■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 GTA에 따르면, '21년 싱가포르의 對한국 수입 및 수출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싱가포르의 '21년 對한국 수입은 전년 대비 42.18%, 수출은 17.3% 증가
 - '21년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약 58%를 차지하는 전자집적회로(HS코드 8542)의 수입 증감률이 전년 대비 41.6%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수입 규모를 차지한 석유와 역청유(HS 2710) 역시 전년 대비 101%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22년 9월 누계 기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5대 수입국이자 8대 수출국에 해당함
 - 싱가포르의 對한국 수입은 증가(+56.60%)하였으며 수출 역시 증가함(+6.83%)('22.9월 누계 기준)

〈 싱가포르 국가별 수입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순위	2020		2021		2022.9월 누계	
	국가	수입액 (증감률)	국가	수입액 (증감률)	국가	수입액 (증감률)
1	중국	47,439 (△3.28)	중국	54,548 (14.99)	중국	46,100 (17.03)
2	말레이시아	41,810 (0.27)	말레이시아	53,670 (28.37)	말레이시아	45,525 (16.38)
3	대만	36,353 (12.30)	대만	51,026 (40.36)	대만	45,217 (23.26)
4	미국	35,055 (△19.93)	미국	40,425 (15.32)	미국	38,976 (32.64)
5	일본	18,117 (△6.53)	대한민국	22,145 (42.18)	대한민국	24,058 (56.60)
6	대한민국	15,575 (13.60)	일본	21,778 (20.21)	일본	20,592 (28.96)
7	인도네시아	13,947 (△10.62)	인도네시아	15,192 (8.93)	인도네시아	13,808 (25.65)
8	프랑스	10,248 (△15.73)	UAE	12,510 (99.72)	UAE	12,766 (54.07)
9	태국	9,758 (27.44)	프랑스	11,505 (12.27)	태국	10,334 (49.78)
10	독일	8,831 (△10.90)	독일	10,282 (16.43)	프랑스	9,505 (10.65)

자료: GTA

〈 싱가포르 국가별 수출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순위	2020		2021		2022.9월 누계	
	국가	수출액 (증감률)	국가	수출액 (증감률)	국가	수출액 (증감률)
1	중국	51,499 (△0.25)	중국	67,611 (31.29)	중국	48,903 (0.87)
2	홍콩	46,252 (4.21)	홍콩	60,065 (29.87)	홍콩	44,921 (1.28)
3	미국	39,143 (17.80)	말레이시아	42,073 (26.15)	말레이시아	39,339 (29.87)
4	말레이시아	33,352 (△18.98)	미국	38,237 (△2.31)	미국	34,370 (22.21)
5	인도네시아	21,467 (△21.55)	인도네시아	28,758 (33.96)	인도네시아	28,654 (39.07)
6	대만	18,252 (11.35)	대만	23,270 (27.50)	대만	19,141 (13.49)
7	일본	17,860 (1.26)	대한민국	19,676 (17.30)	일본	15,616 (17.37)
8	대한민국	16,775 (10.24)	일본	18,325 (2.60)	대한민국	15,529 (6.83)
9	태국	14,115 (△8.09)	베트남	15,648 (25.62)	태국	13,512 (15.72)
10	베트남	12,456 (△3.91)	태국	15,605 (10.56)	베트남	13,418 (18.77)

자료: GTA

나. 투자

■ 한-싱 직접 투자(FDI) 현황

- (對한 투자) '81~'22년 2분기까지 싱가포르의 對한국 누적 투자액은 U\$ 281억(신고기준)으로, 한국의 총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액(U\$ 4,138억)의 7% 차지(4위 FDI 국가*)

 - * FDI 순위(누적 총액(~22.2Q), U\$억) : ①미국(972), ②일본(484), ③네덜란드(337), ④싱가포르(281), ⑤몰타(231), ⑥영국(204), ⑦중국(194), ⑧홍콩(191), ⑨독일(176), ⑩캐나다(119)
 - 2021년에는 부동산, 스타트업 등 대형 펀드의 유입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한 U\$ 41.9억을 기록하며 미국(U\$ 52.6억), 몰타(U\$ 48.9억)에 이어 FDI 국가 3위
 - 주로 국부펀드, 기관투자가 등의 재무적 투자가 큰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게임 콘텐츠, 스타트업 등 분야로 투자 관심 확대

- (對싱 투자) '80~'22년 2분기까지 한국의 對싱가포르 누적 투자액은 U\$ 231억으로, 한국의 총 누적 해외 직접 투자액(U\$ 7,034억)의 3.3% 차지(6위 투자대상국*)

 - * 해외투자 순위(누적 총액(~22.2Q), U\$억) : ①미국(1,811), ②중국(897), ③케이만 군도(590), ④홍콩(323), ⑤베트남(321), ⑥싱가포르(231), ⑦룩셈부르크(215), ⑧캐나다(206), ⑨영국(204), ⑩호주(182)
 -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금융·보험업(△44%), 부동산업(△68%) 투자 진출이 크게 줄어 전체 투자금액은 2020년(U\$ 38억) 대비 36% 감소한 U\$ 24.6억을 기록
 - 대기업 중심의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투자 비중이 크나, 동남아 시장 성장 등에 따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투자 진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업종 또한 IT·이커머스, 프랜차이즈 등으로 다양화

〈 한싱가포르 연도별 직접 투자 현황 〉

(단위: U\$ 백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Q2	누계
싱가포르의 對한국 투자	1,673	2,521	2,347	1,793	1,475	1,307	2,281	4,189	1,390	〈'81~'22〉 28,095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	981	1,462	1,179	1,041	1,661	3,243	3,840	2,457	1,649	〈'80~'22〉 23,07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신고기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다.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간 협력)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 분야 발굴
 - 한국 환경부-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한-싱가포르 간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회담('21.07)을 진행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및 물산업 기술 협력 등 논의하였음
 - 싱가포르는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한 미래 에너지 산업 개발을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싱가포르 계획 〉

구분	세부내용
태양열 에너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2030년까지 최소 2기가와트 피크(gigawatt-peak)의 태양 에너지 배치 ◦ (현황) 싱가포르 태양열 에너지 용량은 지난 5년 동안 6배 이상 증가 ◦ (사례) 싱가포르 수자원청(PUB), 수자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활용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태양광 발전단지 설치
저탄소 전력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해외 재생 에너지원에서 싱가포르 전기 공급의 최대 30%를 수입할 예정 ◦ (참고) 싱가포르는 일부 아세안 국가와 지역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례로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전력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재생에너지를 수입하기 시작함

- (기업 차원 협력) 인프라를 통한 B2G 협력, 테스트 베드 시장에서의 B2B 협력 가능
 - (B2G)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육상교통 종합 개발 계획(Land Transport Master Plan, LTMP) 2040'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인프라 건설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인프라 건설 관련 싱가포르 프로젝트 〉

구분	세부내용
LTMP 2040 (Land Transport Master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2040년 및 그 이후까지의 싱가포르 육상교통 관련 전체 개발 계획 ◦ (계획) 편리하고 빠른 운송 네트워크, 포괄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운송 생태계, 건강한 삶과 안전한 여행을 가능케 하는 교통환경 지향

- (B2B) 싱가포르는 신기술 시범 운영을 위한 파일럿 시장으로서 현재는 친환경·에너지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진출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현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싱가포르 시장을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고려해볼 수 있음
 - * (신산업) 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건설 중이며 전기차 생산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과 접목한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
 - * (플랫폼) 한국 식품 유통 마켓컬리社,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Redmart에 상품 입점

- (공급망) 글로벌 식품 및 반도체 공급망 대란에 한-싱 간 협력으로 대응 필요
 - (식품) 높은 식량 대외의존도(총 식품의 90% 수입)를 보이는 싱가포르는 식품 인플레이션·식량 수출 금지 등의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음
 - * 식량 생산이 가능한 면적은 싱가포르 총 토지 면적의 1% 미만에 해당 (싱가포르 식품청(SFA))
 - * '22.5월, 말레이시아의 닭고기 수출 금지로 싱가포르 내 닭고기 수입 확보에 대한 이슈 발생 ('21년 닭고기 공급량 중 말레이시아 비중 34%)
 - (반도체) 싱가포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반도체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UMC, Siltronic)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첨단 제조 역량과 인적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계속하는 등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 싱가포르에서 반도체 제조는 전자 제조 생산량의 80% 이상, GDP의 7% 이상을 기여하고 있음 (MOS(Minister of State) 연설 중)

〈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사례 〉

기업명	내용
UMC(United Microelectronics Corporation)	68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웨이퍼 공장 시설 건설 계획 발표
Siltronic	30억 USD 규모의 새로운 실리콘 웨이퍼 제조시설 구축 계획 발표
GlobalFoundries	40억 USD를 투자하여 싱가포르에서 생산능력 확장을 위해 제조공장 건설 중

2023

싱가포르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바탕으로 대외 개방형 경제시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비교적 작은 규모의 내수시장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나 e커머스 활성화, 친환경 기술 수요 등 여러 기회요인이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전략 수립 필요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싱가포르 SWOT 분석〉

<p>강점 (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친화적 환경에 따른 비즈니스 활성화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안정성 대외 개방형 경제 시장 	<p>약점 (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적 작은 내수시장 규모 높은 물가와 비싼 임대료 및 인건비 인구 고령화 증가
<p>기회 (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연관 산업 발전 가능성 다대 싱가포르 내 e-커머스 활성화 	<p>위험 (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인력에 대한 규제 강화 글로벌 기업 간 경쟁 양상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친화적 환경을 활용, 법인 설립 및 투자가 모색에 중점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초점 	디지털세대 소비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세대 수요를 겨냥한 유망 소비재 발굴 전자상거래 플랫폼 적극 활용 	디지털 기술 결합 주목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화를 통한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음 동남아 시장 진출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동남아 진출 테스트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시장 규모 및 높은 현지 물가를 감안하여, 초기 진입 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시장성 확인 필요 	친환경, 지속가능성 등 장기적 관점 접근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3년 진출전략

구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친환경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탈탄소 추구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 지속 - 에너지 친환경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 탄소 저감 에너지 기술 및 관련 제품 수요
미래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식량 및 자국 식량 자급력 확보로 “식량안보” 초점 - 식물성 대체육, 밀키트 등 제품 진출 - 자국 농수산 식품 생산을 위한 농업 연구 기술 수요
조선 해양 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의 친환경 전환 - LNG 등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한 ‘탈탄소화’ 기술 강화 - 친환경 해양 에너지 플랜트 시장 주목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의료 시장 확대 전망 - 원격 진료, 인공지능, 건강 데이터 관리 등 첨단 의료 기술 주목 - IT 솔루션 수요 기대

친환경·신기술·신사업 중심의 진출전략 수립

2-1. 친환경 에너지 전환

- ※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노력이 촉구되면서, 싱가포르에서도 숲 산업과 부문에 걸친 친환경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 싱가포르 정부는 범국가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 에너지 수입, 전력 부문 탈탄소화 등 에너지의 친환경 전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싱가포르 정부, SG Green Plan 2030* 발표하며 친환경 정책 추진 중
 - * 5개 주요 목표 : 도심 속 자연, 에너지 전환, 녹색경제, 회복력 있는 미래, 지속가능한 삶
-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 발표('22.3, EMA(Energy Market Agency))
 - 전력 부문의 디지털화 등 에너지의 친환경 전환과 국가 차원의 탈탄소화 강조
 - *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싱가포르의 총 탄소 배출량 40%에 해당
 - 청정에너지 수입, 청정 수소연료 인프라 개발, 태양전지판 배치 극대화 등 전략 제시
- 친환경 에너지 관련 범국가 정부·기업 간 협력 강화 중
 - 싱-사우디, 재생에너지 및 녹색 경제 분야 협력 기회 논의('22.9)
 - 라-태-말-싱 전력 통합 프로젝트 일환, Keppel社 재생에너지 전기 수입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태양열 방수 케이블, 재생에너지 장비와 같이 탈탄소·탄소저감 에너지(태양열, 수소) 관련 기술 및 제품 유망
 - 싱가포르 저탄소 수소연료 기술 개발 중, 2030년 상업화 목표('22.4)
 - * 싱가포르 Keppel社, 싱가포르 최초의 수소 발전소 건설계약 체결 완료
 - '21년 1분기 기준 싱가포르 내 설치된 태양광 PV는 총 4천여 개에 달함(EMA)
- EMA(Energy Market Agency)), 전력 부문 탈탄소화에 대해 인프라와 기술 투자가 필요함을 언급('22.3)
- 수소 에너지 자원 활용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 세계 시장 평가가 긍정적이며, 싱가포르 역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준비 중이므로 관련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2-2. 대체육, 밀키트 등 다변화되는 식품산업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싱가포르는 한정된 국토와 자원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현지 소비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미래 식량안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 토지와 노동력 한계 극복을 위해 '대체식량' 및 '첨단 농식품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식량 공급망 이슈에 따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의 대체식량 생산 및 판매 이슈 지속
 - 세계 최초 상업용 배양육 생산시설 가동하고 세계 최초로 배양육 제품 판매 승인, "30 by 30" 목표 설정 등 식량안보를 위한 선도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음
 - * 30 by 30 : 2030년까지 식품에 필요한 영양 요구량의 30%를 현지에서 생산해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 첨단 농업기술과 R&D 투자 등을 지원
- 간편식, 코로나19 제한 완화로 성장세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요 지속
 - 시장 소매 가치는 '21년 50억 SGD, '26년까지 56억 SGD 달성 기대(유로모니터)
 - '21년 상온 즉석식품 시장은 감소하였으나, 냉동 즉석식품 시장 +8% 성장 추정(유로모니터)
 - 싱가포르 밀키트 시장 수익 향후 성장 전망('22.7월 기준, Statista)
 - * ('22) +2.6% → ('23) +1.3% → ('24) +2.6%
 - 최근 한국 식품기업들의 밀키트 냉동제품 현지 진출 사례 증가
 - * 마켓컬리, 현지 3대 유통채널 중 하나인 '라자다'에 제품 입점시키며 싱가포르 진출 본격화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첨단 기술로 접목한 농식품 및 관련 산업 유망
 - 청정 녹색 농장 시스템(Green farm production system)과 같이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합성 살충제와 같은 투입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의 도시농업 기술에도 주목
- 식물성 제품의 밀키트 출시 등 고려
 - 환경친화적인 식물성 제품이나 냉장·냉동 혹은 건강한 제품에 대한 관심 다대
 - 일례로, 식물성 대체육뿐 아니라 식물성 비유제품 등 여러 범위의 식물성 제품이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현지의 'Eat Fit' 브랜드는 일주일 구독 플랜 등으로 냉동·냉장 즉석식품 배달 서비스 제공함

2-3. 친환경과 결합한 조선해양 산업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全 산업에 걸친 친환경 이슈에 따라, 해양산업에서도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해양에너지 및 플랜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싱가포르 해양 및 해양 엔지니어링(M&OE) 산업은 선박 수리, 조선, 해양 엔지니어링, 유전 장비 제조, 해양 공급 선박의 건조 및 용선 등에 대한 전 세계 수요에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기존 석유가스 공급 어려움과 친환경 관심 증대에 따라 글로벌 LNG 수요 증가**
 - 선박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조선해양 산업의 '탈탄소화'를 촉구하며, 무공해 연료가 주목받고 있음
 - 현재 LNG가 기존 화석연료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 바이오 연료, 친환경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음
- **친환경 해양 에너지, 플랜트 시장 확대 전망**
 - 부유식 수소 생산 해양 플랜트,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양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CCS) 인프라 등 해양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수요 증가 기대
 - * 싱가포르 Keppel O&M은 유럽 북해와 대만 해역에서 해양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 공급을 위해 컨버터 스테이션과 섭스테이션을 2024년까지 제작 예정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LNG 등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한 '탈탄소화' 기술 강화**
 - 환경선박 관련 혁신기술 및 기자재 개발과 상용화에 필수적인 성능시험 및 검증 등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며, 제품과 기술에 대한 실증 자료 확보가 중요
- **해양 재생에너지(Offshore Renewable Energy)에 대한 해양 플랜트 시장 흐름 파악**
 - 재생에너지 해양 플랜트 설비 자재 및 관련 고부가가치 선박 기자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해양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서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기술협력 등 전략적 제휴 차원의 접근도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고려 가능

2-4. 첨단 기술과 결합한 헬스케어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아세안 국가 중 1인당 의료비 지출 최다, 인구 고령화 등 영향으로 의료 시장 확대 전망
- ※ 원격 진료, 인공지능, 건강 데이터 관리 등 첨단 의료 기술 및 관련 IT 솔루션 수요 기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싱가포르, '21년 세계의료혁신지수 12위, 아세안 국가 중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 최다(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싱가포르 국민 의료 지출은 2030년에 4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의 9%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양질의 진료와 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 기대수명 4위를 기록
- 싱가포르 인구 급속한 고령화 진행, 노인 전문 요양 및 의료 수요 확대로 연결
 - 싱가포르 연례 인구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인구는 18.4%로 증가, 2030년까지 23.8%에 이를 것으로 예측
 - *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 ('12) 11.1% → ('21) 17.6% → ('22(E)) 18.4% → ('30(E)) 23.8%
 - 로렌스 워 재무장관은 2030년까지 정부 사회 지출 증가분에 "의료" 부분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언급('22.2)하였으며 리센롱 총리 역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GST 인상 등 세입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언급('22.8)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의료 및 첨단 기술 연구, 실험실,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 기대
 - 싱가포르 정부, 국가 의료 시스템 발전 위해 임상치료법 등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관련 분야 첨단 기술 진출 유리
 - 원격 의료, 인공지능, 건강 관련 전자 데이터 보호와 같이 의료 IT 솔루션 유망
- 고령화 인구 대상의 전문 요양, 실버 헬스케어 등에 주력
 - 싱가포르 의료기기 전시회, 국제 치과 기자재 전시회 등의 현지 마케팅 행사 등을 통해 의료 트렌드 파악 필요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간편식	선정 사유	싱가포르 밀키트 시장 수익 향후 성장 전망('22.7, Statista) * '20~'21년 수익은 소폭 감소(각각 △1.9%, △1.8%), '22년 기준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2) +2.6% → ('23) +1.3% → ('24) +2.6%)
	시장 동향	간편식, 코로나19 제한 완화로 성장세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요 지속('21.12, 유로모니터) * 시장 소매 가치는 '21년 50억 SGD이며, '26년까지 56억 SGD 달성 기대 * '21년 상온 즉석식품 시장은 감소하였으나, 냉동 즉석식품 시장은 +8% 성장 추정
	경쟁 동향	최근 한국 식품기업들의 밀키트 냉동제품 현지 진출 사례 증가
	진출방안	식물성 식품, 건강 간편식, 밀키트 구독 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등장 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식물성 제품이나 냉장·냉동 혹은 건강한 제품 공략 검토
품목명 2		
곡류 기반 비유제품	선정 사유	식물성 기반 비유제품의 시장은 2022년 2,730만 싱가포르달러로 2027년까지 3,71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유로모니터)
	시장 동향	싱가포르 곡류 기반 비유제품 시장 규모는 2021년 2,530만 싱가포르달러로 나타남(유로모니터) 싱가포르 내 비건 인구는 전체 인구의 7% 수준(Statista)
	경쟁 동향	귀리우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 곡류 기반 요거트 및 치즈 등이 현지 슈퍼마켓 등 매장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
	진출방안	시장가격을 사전 조사하여 가격을 설정해야 하며, 효과적인 현지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볼 만함
품목명 3		
식물성 대체육 식품	선정 사유	싱가포르 식물성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22년 110만 싱가포르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까지도 식물성 대체육 시장 규모는 연 평균 성장률이 6.7%로 예상되었음(유로모니터)
	시장 동향	싱가포르의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2021년 기준 90만 싱가포르달러를 기록 (유로모니터)
	경쟁 동향	현지 유통망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성 대체육의 대표적 브랜드로는 퀴른(Quorn), 비욘드 미트(Beyond Meat), 임퍼서블 푸드(Impossible Foods) 등이 있음
	진출방안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 안전 및 식량 보안 감독 기관으로서 식품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의 수입 유통은 싱가포르 식품청의 관할 하에 규제하고 있음. 현지 규제나 방침을 확인하고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품목명 4		
유아동 의류	선정 사유	싱가포르 유아동 의류 시장의 예상 성장률은 2022년 전년 대비 7.92%, 2023년 7%대로 계속하여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유로모니터)
	시장 동향	2021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 제한이 완화되고 예방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를 대동한 부모들의 외부활동 빈도가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유아동복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
	경쟁 동향	싱가포르 유아동 의류 브랜드로는 Mothercare, Mummys market, Baby kingdom, Motherswork, First Few Years 등이 있음
	진출방안	유기농 소재 등을 바탕으로 한 높은 품질 및 우수성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고려해볼 수 있음
품목명 5		
주류	선정 사유	싱가포르 주류 시장은 2025년까지 1억 7,000리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유로모니터)
	시장 동향	싱가포르 주류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억 4,000리터로 나타남(유로모니터)
	경쟁 동향	싱가포르에는 한국의 일반 소주뿐 아니라, 다양한 과일 소주 브랜드가 판매되고 있음. 그 외에도 맥주, 전통주 등도 구입할 수 있음
	진출방안	다문화, 다민족이 사는 싱가포르 특성상 술을 마시지 않는 인구 비율이 높음 (말레이계, 인도계 등). 무알코올 제품을 통한 시장 진출도 고려해볼 만함. 한국의 한 주류회사는 싱가포르 버스 랩핑 광고를 진행하기도 함. 활발한 광고 마케팅도 검토해볼 수 있음
품목명 6		
가정용 정수기	선정 사유	2021년 기준 싱가포르의 정수기 수입 규모는 약 1억 741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1% 증가함(GTA). 한국으로부터의 정수기 수입은 '21년에 전년 대비 102%가량 증가했음(GTA/ HS 842121 기준)
	시장 동향	싱가포르에서는 가정용과 사무용으로 정수기가 보편화되어 있음. CNA 발표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정수기 및 필터 판매량은 계속 상승 중(2021년 기준)
	경쟁 동향	2021년에 싱가포르가 정수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수입 규모는 23백만 달러에 달함. 그 뒤로는 독일(2위), 한국(3위)이 높은 순위로 나타남(GTA/ HS 842121 기준)
	진출방안	디자인과 위생에 초점을 두어 제품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또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범적으로 진출을 시도해볼 수 있음

품목명 7		
커피	선정 사유	2021년 싱가포르 인스턴트 커피 수입 규모는 2020년에 비해 61.48% 증가함(GTA/ HS 2102 기준)
	시장 동향	한류의 영향으로 싱가포르 내 한국 카페 프랜차이즈가 주요 소매품 등에 입점하였음
	경쟁 동향	싱가포르 커피 수입 규모(HS 2102 기준)는 '20년 기준 말레이시아가 24%의 점유율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였으나, '21년에는 미국 점유율이 38%로 증가하며 가장 높았음. 커피 브랜드로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싱가포르 자국 브랜드 커피 브랜드도 있음
	진출방안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경로를 더 넓히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진출을 시도해볼 수 있음
품목명 8		
선박 가스엔진 부품	선정 사유	싱가포르 해양 및 해양 엔지니어링(M&OE) 산업은 선박 수리, 조선, 해양 엔지니어링, 유전 장비 제조, 해양 공급 선박의 건조 및 용선 등에 대한 전 세계 수요에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시장 동향	싱가포르 해양산업협회(Association of Singapore Marine Industries)에 등록되어 있는 조선소는 총 22개 정도로 나타남
	경쟁 동향	가스 추진 엔진은 선두 주자인 MAN B&W사와 Wartsila사의 엔진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박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유럽산과 일본 브랜드 제품으로 시장의 양분화가 진행
	진출방안	KOTRA 한국관 전시 부스 참가, 사절단 등 지원사업 참가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네트워킹 기회 확보 추천
품목명 9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선정 사유	싱가포르 해양 및 해양 엔지니어링(M&OE) 산업은 선박 수리, 조선, 해양 엔지니어링, 유전 장비 제조, 해양 공급 선박의 건조 및 용선 등에 대한 전 세계 수요에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시장 동향	싱가포르 해양산업협회(Association of Singapore Marine Industries)에 등록되어 있는 조선소는 총 22개인 것으로 확인되며,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취급하고 있는 에이전트나 관련된 업체는 50여 곳 정도임
	경쟁 동향	싱가포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은 유럽, 중국,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업체가 이미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진출방안	KOTRA 한국관 전시 부스 참가, 사절단 등 지원사업 참가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네트워킹 기회 확보 추천

품목명 10		
반도체	선정 사유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과 투자 유치 등이 계속됨
	시장 동향	2022년 전 세계 반도체 판매는 전년 대비 11%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22.1월 발표, IC Insights). 싱가포르의 '21년 전 세계 수입 품목 중 1순위는 전자집적회로(HS 8542)로 집계됨(GTA)
	경쟁 동향	2021년 기준, 싱가포르가 전자집적회로(HS 8542)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는 대만(점유율 45%)이 1위를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16%), 대한민국(14%) 순으로 나타났음(GTA)
	진출방안	글로벌 반도체 기업 진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싱가포르 반도체 및 ICT 관련 전시회 등 참관하며 진출방안 모색 필요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건설) 친환경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 저감에 대한 글로벌 이슈 및 싱가포르 정부 주도 하에 저탄소 실현 촉구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내 녹색 차량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적인 건물 설계가 촉구되고 있음
	경쟁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건설 입찰에 여러 현지 기업이 성공하였으며, 향후 정부 주도 공공 입찰에 주목 필요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중심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
품목명 2		
(금융) 핀테크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내 시장 규모는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음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신규 투자 발생이 기대됨
	경쟁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1천여 개의 핀테크 기업이 운영 중('22.6월 기준, KPMG)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장 진입 기회 모색 필요
품목명 3		
(교육) 에듀테크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계기로 비대면 수업이 널리 활용되면서 e-learning 보급화에 영향을 줌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차원에서 유아교육 부문에 대해 싱가포르 3대 장기 이슈로 선정하며 예산을 확대하였음
	경쟁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과목에 한정하여 소규모 전문 학원 위주로 분산되어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과 플랫폼 제공 e-learning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접목한 맞춤형 교육 등 전략 수립 필요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사업명 및 내용	시기/장소
소비·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소비재 통합 사절단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매칭 및 현지 상담 주선 - 생활소비재 및 미용 뷰티 등 소비재 기업 지원 	3월, 4월/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하반기 시장개척단 (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매칭 및 현지 상담 주선 - 생활소비재 및 식품 등 소비재 기업 지원 	하반기/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E커머스 협력 입점 및 판촉 지원 사업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제품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입점 -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 활용 동반 진출 	하반기/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주요 지자체 협업 비수도권 기업 시장 진출 지원 사업 (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지자체 맞춤형 공동사업 - 싱가포르 진출 유망 품목 조사, 현지 판촉 기회 제공 등 	미정/오프라인
ICT·혁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싱가포르 스마트그린 진출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스마트 산업 스타트업 연중 지원 	연중/온·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기자재 싱가포르 진출 지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해양 플랜트 전시회 연계 - 조선 해양 플랜트 바이어 매칭 및 현지 상담 주선 	연중/온·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바이어 매칭 및 한국관 참가 기업 지원 	5월/오프라인
취업·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산업별 취업 멘토링 	미정/온·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이력서 첨삭 사업 	상시/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점프 300 	상시/온라인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싱가포르 대통령 선거	2023.6~9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발표	2023.2~3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3 싱가포르 항공산업 전시회	2023.2~3월	레저, 관광
2023 싱가포르 식품 및 음료 전시회	2023.3월	식품 및 음료
2023 싱가포르 해양산업 전시회	2023.4월	조선 플랜트
2023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2023.6월	정보통신기술

*는 KOTRA 지원 전시회에 해당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최선미	과장	싱가포르 무역관	+65-6715-9721	smchoi@kotra.or.kr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